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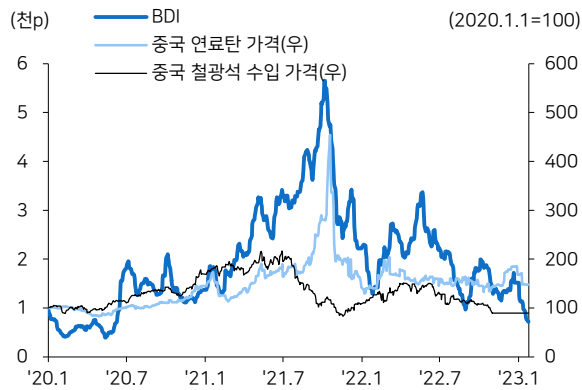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1. 26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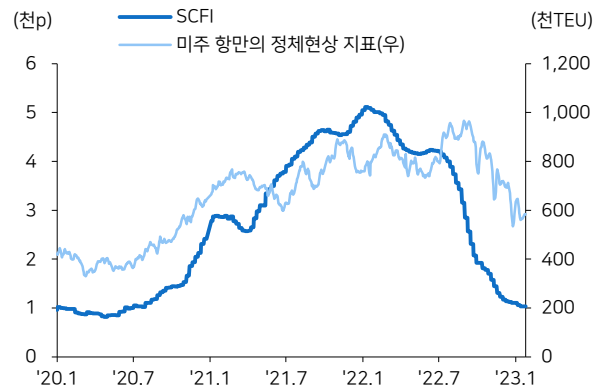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703.0p(-1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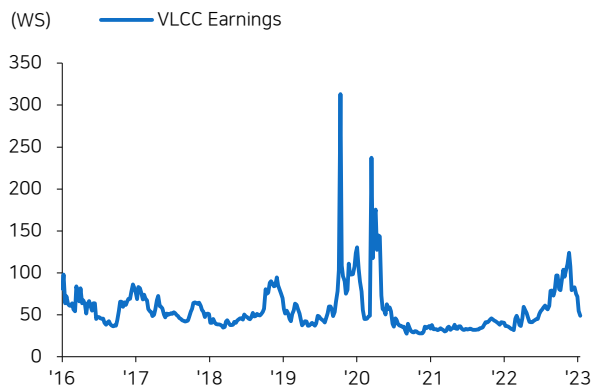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29.8p(-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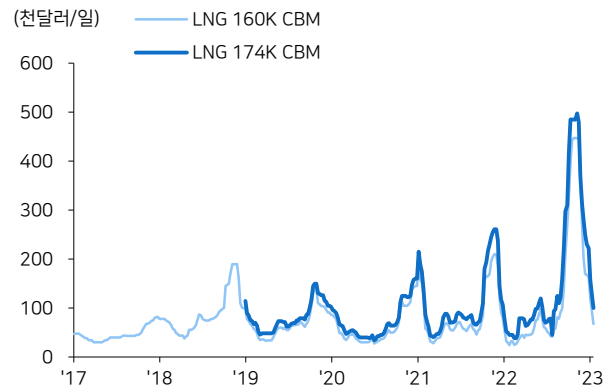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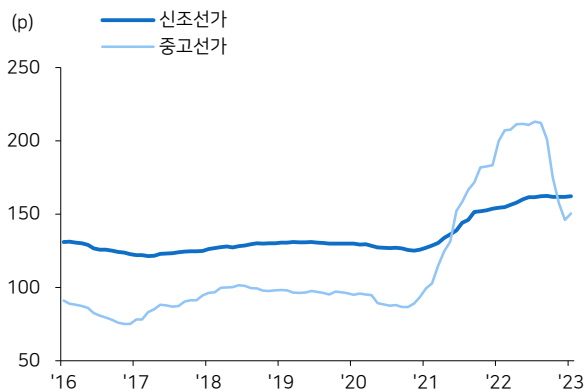
48.9p(-0.1p WoW)



LNG Spot 운임

67.5p(-26.3p WoW)  
100.0p(-2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7p(+0.3p WoW)  
150.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59.5p(-0.5p DoD)  
106.7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Breakpoint: MSC and Maersk to disband huge 2M liner alliance in 2025

최대 2개 선사인 MSC와 Maersk가 2025년 2M 얼라이언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2015년 결성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알려짐.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매우 다른 문화와 업무방식을 지녀 얼라이언스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측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 Container ship scrapping hit 17-year low in 2022 but owners now have no choice

컨테이너선 폐선율이 17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폐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도됨. 그간 높은 운임 및 용선료로 선주들은 높은 폐선가격에도 폐선하지 않았지만, Alphaliner는 2023년 강한 폐선 랠리를 전망한다고 보도됨. 2,400만TEU의 신조선이 인도되며 2023년 시장은 초과공급일 것으로 설명함. 2023년 폐선량은 350,000TEU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1월에만 13척이 폐선되었다고 언급됨. (Tradewinds)

### 현대글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출사표...인니 처리기업 맞손

현대글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고 보도됨.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통합 폐기물 처리기업 '아라인바이론멘탈'과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인도네시아를 낙점한 배경은 전기차에 대한 현지 성장성임.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50만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더 구루)

### 美, 에너지가격 급등에 베네수엘라 가스전 제재 또 완화

미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베네수엘라 영해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됨. 이번 승인은 트리니다드의 요청으로 카리브해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고 알려짐. Reuters에 따르면, 미국의 승인으로 개발은 재개되겠지만 유럽 수출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됨. (조선Biz)

### Los Angeles County Blocks New Oil Wells, Mirroring Citywide Ban

Los Angeles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하고, 기존 작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됨. 기존 작업 건도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으로 알려짐. 2022년 기준 LA에는 1,064개의 활성 광구가 있다고 조사됐다고 알려짐. 해당 조례안은 30일 후 발효될 예정임. (Bloomberg)

### 민노총 택배노조 내일부터 부분파업... "대란은 없을듯"

민주노총 본부의 부분파업이 시작되나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설 연휴도 끝나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도됨. 전국 택배기사 2만여명 중 6~7%가 부분파업에 참여한다고 알려짐. 노조측은 CJ대한통운이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해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파업에 노조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됨. 파업 시 택배기사 수입이 끊겨 내부 반발도 많다고 알려짐. (조선Biz)